

한국밀원수조림육성협회 창립축사



이경준 서울농생대교수
한국 밀원수조림육성협회 초대회장
(현 한국임학회장)

귀 한국밀원수조림육성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뜻 깊은 이 행사에 축사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창립에 이르기까지 산파역을 맡으신 이경준 회장님을 위시하여 임원과 관계인 여러분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귀 협회의 창립목적은 양봉학회의 성격과 협회의 생산자가 아울러 꿀벌 생산진흥의 성격을 겸한 실사구시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연하면 밀원수 조림, 육성 개발, 벌꿀 생산 가공, 특히 기능성벌꿀생산, 유통, 정보, 양봉산업과 관련된 학술창달에 새 장을 열어 벌꿀에 관한 학술과 생산에 큰 진흥의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 협회가 설립됨으로써 첫째, 양봉계의 연구실이나 상아탑에서 개발된 기술과 논문이 서가에 장식품이나 보고서로 끝나지 않고 그 기술이 일선에 있는 4만 명의 양봉가에게 접목할 수 있는 산 기술은 마치 영롱한 진주가 됨으로 진정한 산학협동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지구의 온난화로 기후변화가 일어나 생물

계의 생태계가 변화 되고 있습니다. 생물자원이 매일 감소되고 있음으로 국내 식물의 토종이 역시 감소추세에 있다. 차제에 국내 밀원수인 아까시나무에 70% 의존하고 있는 밀원수는 물론 밀원식물의 생물자원 보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국내 꿀벌은 토종벌과 개량종이 있는데 토종벌은 개량종의 공격을 받아 설 땅을 잃어 설악산이나 고산의 골짜기로 쫓겨가 학살을 당하고 해마다 감소하여 최근 통계로 토종벌의 비율이 38~26%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양봉인은 전통꿀벌로써 상징되는 토종벌의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FTA(자유무역협정) 체제에 적극 동참하여야 하며 FTA 시대에 농산물중 임산물은 그 구성비에서 0.4%차지하며 그 성장률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벌꿀은 대체효과 즉 수입방어에 대체효과가 크므로 본 협회의 역할이 크게 기대됩니다.

끝으로 귀 협회 창립을 통하여 벌꿀산업 진흥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되고 국가경제와 국민의 여망에 기대하기를 바랍니다.